

‘영혼의 정복’: 신학적-정치적 논쟁의 계보

이성형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이 글은 16세기 아메리카의 정복과 진교를 둘러싸고 벌어진 스페인의 식민화 논리를 ‘타자화’(othering)의 틀 속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 16세기의 논쟁은 17세기 이후 세련된 형태로 전개되는 로크의 <시민정부론>, 헤겔의 <역사철학>과 같은 저작에서 볼 수 있듯이, 서구의 타자화 논리의 뿌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필자는 여기서 16세기 전반기를 지배했던 스페인 정치사상 흐름의 세 줄기가 바로 정복과 식민화를 둘러싼 세 개의 이해 관계자 집단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그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초기에 제기된 정복자들과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교단의 노예주의 신학 체계는 당시 진교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탁발승단의 방침과는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식민지배의 장기적 이해를 도모하는 왕권의 이익과도 융합하기 힘들었다. 반면 하느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외치는 탁발승단의 ‘진교의 유토피아’론도 당시에 첨예하게 드러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서 실천에 옮겨지기가 힘들었다. 더구나 이들의 논리를 급진화한다면 스페인 군주의 파르토나토 레알의 정당성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와 세력의 균형을 도모하는 스페인 군주와 이를 표현한 중앙파적 신학자들은 식민지 현지권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한 때는 탁발승단의 손을 들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엔코멘데로나 식민지 현지 권력층의 저항과 반란이 거세지면, 군주는 자신이 내린 법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수정하기도 했던 것이다.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는 바로 이러한 중앙파적 신학체계를 가장 세련되게 표현한 학자였다. 그는 자연법 체계를 원용하여 노예주의 신학자들의 타자화 논리를 비판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의사소통할 권리’를 내세워 스페인의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지배의 논리를 세련화시켰던 것이다. 오늘날의 근대 국제법의 논리와도 별반 차이가 없는 그의 식민 합리화 논리는 16세기 스페인 정치사상의 정수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1. 서론

이 글은 콜롬버스가 신대륙을 (재)발견하면서 열린 유럽의 아메리카 傳敎史에 관한 한 연구이다. 오랫동안 이슬람 세력과 싸우면서 이베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된 스페인에는 종교적 에너지가 유난히 강했고, 여타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국가도 성-속 통일체의 성격을 띠었다. 그런 점에서 콜롬버스가 ‘발견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스페인의 정복 사업은 땅과 인민에 대한 식민화에 더하여 영혼을 식민화하는 과제가 부가되었다. ‘영혼의 정복’(spiritual conquest)이란 용어는 스페인의 정복 사업을 여타 유럽 열강들의 정복 사업과 확연하게 구분지워 주는 차이점이기도 하다. 애초부터 스페인 왕실과 신학자들은 아메리카에 대한 통치권을 독점화하는 논리를 원주민의 영혼을 정복하고 식민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는 논쟁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미국의 역사학자 루이스 헵크가 지적했듯이 피비린내나는 살육과 폭력이 적나라한 정복과 식민화의 와중에서 ‘정의의 투쟁’(the struggle for justice)이 꽃 핀 것도 바로 16세기 스페인 카톨릭시즘의 독특한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Hanke 1951). 이점은 신교도 영국의 북미 인디언 정복사나 네덜란드의 식민지 정복사와 다른 차이점이기도 하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혼을 정복하고 식민화하는 과제는 쉽지 않았다. 우선 정복 사업에 개입된 수많은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혔고, 이에 따른 상이한 시각들이 서로 충돌하였다. 탁발승단의 수도사들은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정복사업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설파한 반면, 정복자들과 엔프멘데로들은 자신들의 재부와 지위를 높이는데 온갖 힘을 기울였다. 왕권과 궁정의 신학자들은 이러한 이해의 충돌 속에서 가능한 ‘정의’를 유지하면서 정복자들과 수사들의 충돌을 중재하려 했다. 물론 이러한 중재는 곧 식민지에서 왕실의 이익과 권력을 극대화하는 것이기도 했다. “과연 무엇이 스페인의 아메리카 통치를 합법화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유발된 16세기의 대논쟁에서 우리는 상이한 논리와 비전의 충돌을 찾아낼 수 있고, 이 속에서 스페인인들이 원주민들을 타자화(othing)하는 여러 개의 시선과 논리를 변별해 낼 수 있다.

먼저 ‘땅끝’ 스페인을 넘어서 서쪽 바다 건너 이제껏 지도에서 그려지지 않은 새로운 땅이 있고, 인민이 있다는 사실은 스페인 사람과 유럽인들을 경악시켰다. 16세기의 스페인인들은 아메리카 대륙과 여기서 사는 사람들을 지도 속에 그려넣어야 했다. 또 회교도도 아니고 아시아인도 아닌 전혀 별종의 사람들을 스페인인들의 인지적 지도 속에 분류해 넣는 작업도 필요했다. 말하자면 이들을 명명하고, 타자화시켜 자신의 통치를 합리화하는 논리를 계발해야만 했던 것이다.

새롭게 발견된 땅과 인민에 대한 독점적 통치를 합리화하는 논의는 콜럼부

스의 제1차 항해가 끝난 시점부터 시작되어 16세기 내내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아메리카에 대한 지배의 독점권을 다른 유럽국가들로부터 지켜내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율리우스 6세가 발한 빠트로나토 레알(Patronato Real)은 스페인 왕실로 보아서 큰 선물이었다. 그러나 정작 스페인 내부에서 정복과 식민화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갈등과 비전이 충돌하였다. 스페인은 16세기 내내 이러한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논쟁은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달리하는 사회세력들의 이해에 기반하고 있었기에 쉽게 조정되거나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또 당시 종교적 열정으로 충만해 있던 탁발승단과 교단들이 개입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 글은 초기 전교사에서 나타난 ‘영혼의 식민화’를 둘러싼 신학적 정치적 논쟁의 계보를 각 이해관계 세력들과 결부지어서 서술하고자 한다. 이미 16세기의 전교사에 대한 연구나 16세기 정치적-신학적 논쟁에 대한 연구들은 방대하다고 할만큼 많이 쌓여 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들인 루이스 헵크(Lewis Hanke), 환 프리에데(Juan Friede), 조르지 빠타이용(George Bataillon), 마누엘 히메네스 페르난데스(Manuel Jimenez Fernandez), 앙헬 로사다(Angel Losada) 등이 남긴 저서와 논문만 해도 상당한 분량이고 최근에도 연구업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라스 까사스와 같은 대표적 논객에 대한 연구이거나, 논쟁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것이라 대단히 미시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당시에 제시된 시각과 논리들이 이해집단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는 데는 다소 소홀함을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미레스(Fernando Mires 1989, 1991)의 연구는 이 부분에 본격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한 것이어서 우리의 흥미를 끈다. 필자 역시 미레스의 연구를 많이 참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하려고 한다. 여기에 필자가 더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이다.

16세기는 스페인이 아메리카란 ‘타자’를 만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국으로서 깃틀을 확립하는 시기이다. 이런 점에서 타자를 명명하고 왕국의 체계 내부에 위치시키는 작업은 국가적 프로젝트였다. 우리는 이 논쟁에서 스페인 나아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을 규정하는 다양한 타자화의 논리를 찾아볼 수 있다. 원주민의 인격적 본성을 부인하고 노예로서 합리화하는 논리에서부터, 유럽인보다 더 훌륭하다는 ‘선한 야만인’(bon sauvage)이란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타자화의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담화는 곧 바로 권력으로 변환되는 것이었기에 논쟁은 그만큼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필자는 16세기의 논쟁이 이러한 타자를 어떤 식으로 명명할 것이냐로 출발했고, 그 결과 자연법에 기초한 국제법의 논리가 세련된 타자화의 논리를 만들어내었다는 명제로 끝을 맺으려 한다. 논쟁의 서술은 주로 행위자 내지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와 각 세력의 타자화 논리가 결합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제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쟁의 계보를 서술하기 전에 정복의 의미를 전체

적으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영혼의 정복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각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논리, 그리고 비전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최초로 원주민을 노예화하는 것을 합리화한 ‘노예주의 신학’의 탄생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 ‘인디오주의 신학’의 전개과정을 제5장에서 다룬다. 제6장에서는 양 논리 체계의 갈등 가운데 왕실과 관료제에 의해 받아 들여진 중앙과적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식민화 초기 과정에서 명멸했던 논리들의 부침을 정리하기로 한다.

II. 정복의 의미

1492년 콜롬버스가 이끄는 선단에 의해 서인도 제도가 재발견되고, 이어 꼬르테스에 의해 오늘날 멕시코가 정복되어 본격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정복과 식민화 시대가 전개된다. 발견과 정복은 곧 유럽에게는 근대성의 탄생을 예고한 역사적 사건이었다(Dussel 1992). 유럽인들은 성서적 지리관을 넘어서 타문화와 접촉하면서 곧 새로운 공간 관념을 지니게 되었다. 구약에서 요나가 도망갔다고 하는 ‘땅끝’ 스페인은 더 이상 땅끝이 아니었다.

더구나 유럽 문명은 이베리아 반도의 모슬렘 세력으로부터 근 800년 동안 과학과 기술, 철학과 시문학의 성과를 받아 들였고, 당시나 이전의 중국 문명보다 별로 우월한 것이 없었다. 더구나 동로마 제국의 수도이자 그리스 정교의 본산인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투르크에 함락당한 이후는 유럽인들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1492년 아메리카의 ‘발견’은 이러한 힘관계를 결정적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다.

유럽은 당시까지 알려지지 않은 아메리카라는 문명과 만나면서, 처음으로 거울을 통해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즉, 아메리카란 열등한 ‘타자’를 확보함으로써 우월한 문명적 유럽이란 자아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유럽인들의 사고에는 ‘문명과 야만’이란 이분법적 도식으로 자신과 타자를 규정하는 멋진 아이디어를 확보하게 되었다. 데카르트의 코기토도, 로크의 사회계약론도, 헤겔의 절대지도 모두 아메리카라는 담화의 인벤션을 통해 만들어졌던 것이다.

발견과 정복은 유럽인들의 자아 정체성을 확보하는데서 끝나지 않았다. 아메리카에서 들이닥친 금과 은은 당시 본원적 축적기의 유럽 국가에 큰 보탬이 되었다. 금, 은의 유입은 당시 팽창하던 교환거래의 화폐화를 유발시켰고, 이러한 화폐화는 거꾸로 산업활동을 크게 고무시켰다. 물론 아메리카가 유럽 선진국의 수출시장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16세기부터 시작된 거대한 변화는 유럽의 산업혁명으로 연결되었고, 나아가 대서양을 기축으로 한 유럽 열강의 헤게모니가 등장하여 세계사를 주도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원주민 문명에게는 정복과 식민화란 자신들이 이제까지 영위해왔던 생태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했고, 안정적이었던 삶의 조건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는 과정이었다. 원주민들의 우주관과 종교관은 악마의 장난으로, 생태환경에 적응한 노동관습은 ‘게으른 본성’으로 매도당했다. 더구나 정복자들과 이주민들이 퍼뜨린 전염병균은 아무런 면역체계가 없었던 원주민들에게 집단학살에 버금가는 재난을 안겨 주었다. 이제 영토와 인민은 정복자의 손아귀에 장악되었고, 나아가 이들의 영혼마저 식민화되는 운명에 처했다. 그런 점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의 아이덴티티는 철저히 부정당했고, 서구화를 강요당했다고 할 수 있다.

아메리카의 발견과 정복은 스페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들뜨게 만들었다. 돈을 벌고 귀족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서부터, 그리고 불쌍한 원주민의 영혼을 구제하려는 탁발승단의 수도사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를 향하는 배를 탔다. 정복 자체가 애초부터 모험대차(venture business)의 성격을 띠었기에 경제적 이득을 둘러싸고, 왕, 정복자, 엔코멘데로, 원주민, 교회 세력 사이에 복잡한 이권투쟁을 야기시켰다. 이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호 질시하고 반목하며, 갈등하고 투쟁하는 게임 상황에 빠져들었다. 정복과 식민화에 대한 관념(visions)도 각자의 이해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었고, 이 시각들은 때때로 공존하거나 갈등하면서 모순적으로 뒤엉킨 결합체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III. 행위자들의 논리와 비전

1. 정복자과 엔코멘데로

무엇보다 정복자들은 금은 보화를 얻고 신분상승의 기회를 찾으러 아메리카에 몰려 들었다. 코르테스의 말처럼 부와 지위를 찾으러 여기에 왔지, “밭을 갈기 위해 온 것은 아니었다.”(Cortes 1995) 이들은 미국으로 이주해온 홈스테드 농민들과 달랐다. 이들은 스페인 본토에서 느낀 예속과 신분적 제약에서 탈출하여, 신사회에서 부도 누리고 지위도 개선하는 일거양득의 기회를 포착했다. 이들은 원주민을 가혹하게 착취할수록, 자신의 부와 지위가 개선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아메리카에서 새로운 봉건영주로 태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당대 정복자들과 엔코멘데로들의 꿈이었다. 이러한 꿈이 까스띠야 왕국의 군주에게는 위험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가능한 신속하게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인디오에 대한 잔혹한 학살(genocide)이 시작되었다. 은광과 금광에서 가능한 빨리 거대한 부를 확보하려는 동기에서 인디오 노동력을 가혹하게 착취했던 것이다. 스페인 정복자들과

식민자들이 독특한 것은 부를 축적하겠다는 동기가 아니라 이 동기에 다른 모든 가치를 종속시켜 실천한 점이다. 화폐에 의한 가치의 동질화는 16세기의 새로운 현상으로 평등주의적이고 경제적인 근대적 멘탈리티이다. 화폐 가치를 모든 가치에 앞세운 스페인 정복자들의 ‘야만성’은 결코 격세유전적이거나 야수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인간적인 것으로 근대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었다 (Todorov 1982: 143).

정복자들은 부를 늘이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았다. 의례 그렇듯이 자신들이 유럽에서 이루지 못한 꿈인 귀족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했다. 당연히 자신들이 직접 통제하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했다. 물론 발견한 땅에 대한 최종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왕의 허가장과 인정이 필요했다. 왕의 인정이 없다면, 발견한 땅에 대한 지배와 경제적 이득 모두가 이를 노리는 다른 정복자들의 먹이감이 되기 쉽상이었다. 당연히 왕의 인정을 제외하고는 정복자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손아귀에 장악하고자 했다. 왕권에 대한 서어비스는 그저 립 서어비스(lip service)에 지나지 않았다. 아기레(독일의 뉴시네마가 낳은 명작영화 <아기레, 신의 분노>를 보라)나 피사로 형제, 그리고 알마그로와 같은 정복자들은 완전히 왕권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제국을 꿈꾸었다.

왕은 바다 넘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고, 모든 것은 정복자들의 폭력 아래 노출되어 있었다. 왕실 인디아 위원회의 공문은 끊임없이 식민지 부왕청으로 날아 들었지만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었다. 왕의 명령과 법률은 “준수되었지만, 집행되지는 않았다.”(Obedesco, pero no cumplo.) 그들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부하들에 대한 面對面 네트워크를 통해 실질적인 지배의 피라미드를 구축하고자 했다. 당시 아메리카에서 이들은 즐겨하던 말은 다음과 같았다. “아무도 나에게 명령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은 바로 나다.”(Nadie ne manda a mi, yo soy el mandon de otros.)

콜롬버스를 포함하여 대부분 정복자들은 원주민들을 지나칠 정도로 가혹하게 착취했고, 권력을 남용했다. 그러나 꼬르테스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복자들은 부하나 원주민을 다루는데 있어 잔인하거나 무능했다. 이들의 잔인한 행동과 무차별적인 착취행위는 교회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몬테시노스나 라스 까사스와 같은 초기 전교자들은 정복자들과 엔포멘데로들의 만행이 기독교 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신랄하게 공격했다. 정복자들은 정복 초기에 영토를 발견하고 카스티야 왕국의 관할권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하지만, 탁발승단과 교회의 공격과 왕권의 끊임없는 견제에 밀려서, 장기적으로 왕권과 서인도위원회, 그리고 관료 체제에 권력을 잠식당하게 된다. 그러나 대서양을 넘나드는데 생기는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관료제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한 통제력의 제한성 때문에 정복자들과 엔포멘데로들은 여전히 자신의 권한을 상당히 보존할 수 있게 된다.

2. 군주

군주는 정복에 의해 편입된 왕령에 대해 최종적으로 지배권을 확보한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엄격히 말해서 아메리카 영토는 스페인의 ‘식민지’가 아니라, 까스티야 군주에 귀속된 스페인 왕국의 일부가 되었다. 16세기의 스페인은 하나의 통합된 왕국이라기 보다는 ‘여러 개의 스페인’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 스페인 왕조(Monarquía Española)는 그라나다처럼 왕국(Reino)에 결합되거나, 아니면 아메리카처럼 까스티야왕실(Corona de Castilla)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Carmagnani 1992). 아메리카에 대한 지배권(imperium)은 당연히 까스티야 군주가 쥐고 있었고, 아메리카에 이식되는 법률과 제도 모두 까스티야에서 온 것이었다.

스페인 군주는 정복자들이 정복하고 식민하기 시작한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교황이 부여한 파트로나토(Patronato Real)를 매개로 하여 최종적으로 확보하였다. 1501년과 1508년의 교황이 스페인 군주에게 칙서를 통해 양허한 파트로나토의 제권리를 통해 스페인 군주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개종을 촉진하고 식민지 교회를 부양할 책임을 맡았다. 군주는 식민지 교구의 창설, 주교의 임명, 포교 운동 등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복과 식민 사업 그리고 지배에 대한 합법적 권리가 과연 파트로나토로부터 나오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16세기 내내 스페인은 정복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예주의 신학자들, 원주민에게 평화적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려는 인디오주의 사제들과 수도사들, 그리고 왕실의 논리를 대변하는 도미니카 수도회의 법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스페인 군주들은 중세때부터 기독교 군주로서 “정의와 진리”를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다. 1255년의 ‘군주의 임무와 권리’(Fuero Real)은 왕권이 유기체로 구성된 보편적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것을 규정하였다. 군주는 그런 점에서 땅에서 ‘신의 대리자’(divine agent)였고, 공동체의 공공선을 보장해야만 했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공공선을 지향하는 군주의 행동은 자연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감시가 필요없다고 말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오랜 기간동안 모슬렘 세력들과 싸우는 동안 왕권은 교회를 복속시킬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스페인의 군주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성과 속 모두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16세기에 들어와서 스페인 군주의 교회 통제권은 로마 교황청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았다(MacLachlan 1988: 1-8).

이사벨라 여왕부터 펠리페 2세에 이르는 카톨릭 군주들은 모두 신심이 깊은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정복자들과 엔코멘데로들이 인디오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는 것을 비판하는 탁발승단의 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정복자와 엔코멘데로들의 독자적인 권력 행사가 왕국의 혼란으로 이어질까 두려워했다. 물론 이들도 탁발승단의 수사들이 꿈꾸는 독자적인 전교적 권력이 아메리카

에 뿌리내리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이런 갈등 속에서 군주들은 신민의 안녕과 복지를 국정목표로 내세웠고, 때때로 정복자들의 이해를 과감하게 훼손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서 군주들은 정복사업의 방향을 둘러싸고 신학자들과 법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매우 솔직하고 개방된 토론을 궁정에서 열었고, 그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다. 사실 군주는 바로 이 왕국의 공동선을 담지한다는 중재자의 역할을 통해 왕실의 경제적 이해나 정치적 이해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군주는 법적으로 아메리카에서 확보한 모든 땅의 소유자였고, 새로운 신민들로부터 공납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였다. 엔코멘데로들은 땅의 용익권을 가질 뿐이었다. 노동력을 할당하는 엔코미엔다나 레빠르따미엔토 제도도 굴곡은 있었지만 영구적으로 상속되지는 않았다. 최고의 통치권(imperium)과 사법적 권한은 여전히 군주에게 있었고, 그의 대리자들이 관할권(jurisdiction)만 가졌을 뿐이었다(MacLachlan 1988: 38).

그러나 이러한 군주의 권한은 멀리 떨어진 아메리카에서 충분히 행사되지는 못했다. 권한과 위임 사항은 매우 애매한 용어로 규정되어 있었고, 많은 업무들이 중첩되었으며, 지시한 내용이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기도 쉽지 않았다. 스페인 식민지 관료제는 왕의 은덕을 입은 크로니들로 채워졌고 그 관료제 내부의 위계관계도 수평적이었다. 물론 이러한 체제는 임기응변과 유연성의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었지만, 효율적인 통치와 조세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점도 많았다.

스페인의 군주들은 정복과 식민 과정에서 생긴 복잡한 분구나 갈등 속에서 정복자들의 권력 남용을 교단의 수도사들의 힘을 이용하여 비판케하고, 점차 이들의 권력을 중화시키고 제거해 나갔다. 또 부왕과 각종 고위직의 대리자를 파견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립할 수 있었다. 정복자들의 파견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자로서 군주는 정복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나, 수도회의 수사들이 정복자들의 전횡과 만행을 비난하였을 때 중재권을 행사하여 결국은 아메리카에 대한 통제권을 온전히 왕국의 관료제 손으로 이관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예수회가 식민시대 말기에 속권을 침해하는 경향을 보이자 이들을 아메리카 전역에서 일시에 추방시킨 사람도 바로 군주였다.

3. 교회와 탁발승단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스페인 국가는 다른 서유럽 지역과는 달리 교회를 복속시킬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국가와 교회는 상호 결합되었고, 이슬람처럼 정교일치 내지 정교 미분리의 전통 아래 독특하게 발전하였다. 군주는 교회 사제직의 서임권도 갖고 있었고, 또 교회의 재정적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아메리카의 발견으로 반종교개혁적인 스페인 교회는 엄청난 에너지를 얻게

되었다. 오랫동안 잠들고 있던 중세적 천년왕국설이 스페인 교회를 뒤흔들었고, 스페인 교회는 신이 선택한 말세의 선지자 역할을 자임하게 되었다(Mires 1989; 1991). 요아힘 데 피오리(Joachim de Fiori)의 종말론적 성서해석에 영향을 받은 탁발 수도회들은 부패한 유럽 사회를 벗어나 새로운 아메리카에서 말세에 부여된 마지막 전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했다(Florescano 1994: 74). 이들은 원시기독교의 청빈과 금욕적 생활을 몸소 실천했다.

새로 발견된 아메리카는 이들에게 새로운 ‘약속의 땅’이었다. 모톨리니아를 비롯한 12 사제를 파송한 프란시스코 수도회를 위시하여 도미니카 수도회, 그리고 수많은 군소 수도회가 전교단을 파송하였다. 이들은 정복자들과 이들의 이익에 편승한 공식교단의 노예신학자들과 싸우면서 원주민들을 성경의 길로 인도하고, 이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탁발승단의 수도사들은 어떤 점에서 유토피아론자들이었다. 종말론적 성서 해석으로 무장한 이들은 아메리카에서 천년왕국적 비전을 갖고, 유토피아적 공동체를 추구하였다. 당시에 수사들이 즐겨 애독하였던 책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에라스무스의 저작들이었다는 사실은 이런 점에서 무척 흥미롭다. 라스 까사스의 베라빠스 실험이나 바스코 데 끼로가 신부의 공동체 목회 실험은, 바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그리고 있는 40여명으로 구성된 가부장적 촌락가게 모형과 유사하였다. 유토피아적 공동체에 대한 갈구는 부패한 유럽을 벗어나려는 절박한 시도였고, 하느님의 세계를 직접 지상에서 실현하려는 운동이었다.

교단의 수도사들은 인디오 공동체를 엔코멘테로의 거주지로부터 분리시키려 노력하였고, 나아가 ‘공납’제에 기초한 체제를 구축하려 애썼다. 교단의 공동체적 생활조직은 인디오들의 집단적 생산방식과 유사했기 때문에 인디오 사회의 문화와 생활방식이 부분적이나마 보존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들 덕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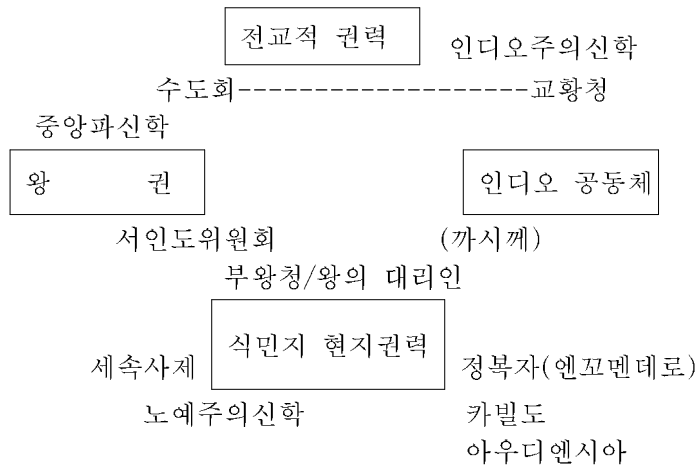
그러나 초기에 ‘전교의 유토피아’가 소진되면서 초기 전교를 주도했던 프란시스코 수도회와 도미니카 수도회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식민지 전교사업의 주도권은 반종교개혁의 파수꾼을 자임한 예수회로 넘어갔다. 또 탁발승단의 수사들이 종교 문제에 관해서 군주의 통제권을 자주 침범하는 등 성가시게 굴었기 때문에 성사나 교회행정에서도 점차 세속사제들의 발언권이 강화되어 갔다.

4. 인디오

군주의 입장에서 보면 인디오는 신민(subditos)으로 공납을 받치는 의무가 있는 자였다. 그러나 교단의 입장에서 보면 하느님의 길로 인도되어야 할 잠재적 신앙인이었다. 정복자와 엔코멘테로들에게 인디오는 착취해야만 하는 노동력에 불과했다. 서로 상이한 세 개의 시선 속에서 인디오의 위상은 고정되지 않았다.

인디오들은 정복자들이 강요한 노역과 약탈 속에서 수없이 죽어갔다. 유럽에서 전래된 역병으로, 가혹한 노동력 착취로 원주민의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심지어 50년이 지나지 않아 카리브 해역의 원주민은 거의 절멸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원주민들에 대한 식민화 과정은 정복자들과 엔꼬멘테로들과 끊임 없는 갈등 속에서 이루어졌다.

몇몇 지역의 원주민들은 때때로 적극적인 행위자 역할을 하면서 복잡한 동맹, 분규, 갈등을 매개로 하여 정복과 식민화 과정에 개입하였다. 멕시코의 틀라스칼라족, 페루의 우앙카족은 정복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왕으로부터 직책이나 보상을 받았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공납과 노역의 대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 이들 대부분은 원래 살던 공동체에서 벗어나 광산촌이나 노역장에서 과중한 노역을 부담해야 했다. 전통적인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힘든 생활은 지탱하다못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도피책을 취하거나 아니면 고통을 잊기 위해 과음하거나 코카 잎파리를 씹으면서 수동적인 저항을 모색하였다. 때때로 이들은 반란을 일으켜 불만을 조직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물론 스페인 권력에 협조적인 까시케들의 경우는 지배의 중간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잘 보존할 수 있었다. 이들은 스페인 지배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통합과 회유의 대상이었다. 원주민들은 군사적으로 완전히 정복당한 이후에 흰 색 피부의 수도사들이 전해준 스페인의 신을 받아 들었다. 그러나 이들이 수용한 기독교는 프란시스코 수도사들이 포교하고자 의도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원주민들의 판테온과 세계관은 여전히 살아 남았고, 기독교 신앙은 선택적으로 포섭되었을 뿐이었다. 프란시스코 교단이 유카탄 반도에서 전교한 경험에서 드러나듯이 원주민들은 여전히 인신공희를 포함한 우상숭배를 끊지 못했다. 또 페루의 우아망가에서 발생했던 반기독교 천년왕국 운동에서 보듯이 전교의 유도피아는 초기에 열성적으로 기독교를 전교했던 수도사들의 의도와 달리 초기에 소진되고 말았다.



IV. 불평등 독트린으로서 ‘노예주의 신학’: 극단적인 타자화

대체로 16세기는 프란시스코 수도회를 비롯한 탁발승단의 주도로 원주민들에 대한 전교사업이 열정적으로 추진되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전교사업이 무중력 상태에서 평온히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무엇보다 정복자들과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식교회의 계서제의 반발이 컸다.

앞에서 보았듯이 정복자들과 엔코멘테로의 입장은 원주민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를 통해 부와 지위를 가능한 대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들에게 원주민들이란 인간이 아니었다. 원주민들은 착취의 도구였고, 그야말로 “말하는 도구” 이상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당연히 이들이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었다.

노예주의 신학의 탄생은 바로 이러한 엔코멘테로들의 이해를 근거로 한다. 식민지의 지배계급이었던 이들은 교회의 계서제 부문과 정치적으로 결합하면서 담화 수준에서 진정한 노예주의 신학을 만들어 내었다(Mires 1989; 1991). 노예주의 신학은 바로 원주민들이 ‘비인간’이라고 규정하는데서 출발한다. 이들은 유럽인, 좁게는 스페인인만 합리적 이성을 지닌 인간이고, 원주민을 영혼이 없는 말하는 짐승 정도로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서구와 비서구가 만난 문화적 만남 속에서 대상을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타자화시킨 예가 될 것이다.

노예신학의 탄생은 초기의 ‘군사적 제국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해 나왔다. 히네스 데 세뿔베다(Gines de Sepulveda)나 팰라시오 루비오스(Palacio Rubios) 등이 집대성한 논리는 아메리카에 대한 스페인의 군사적 정복에 대한 옹호론이자 아울러 원주민에 대한 착취를 합리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전혀 기독교적이라 볼 수 없는 노예제가 당대에도 버젓이 성행했고, 약한 민족에 대한 노골적인 정복 전쟁이 양심에 거리낌없이 행해졌던 시대 배경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논리가 전혀 낯설 것도 없다. 당대 유럽의 전쟁법(jus belli)이나 국가간 규범은 전혀 인간적이지도 기독교적이지도 않았다.

세뿔베다는 원주민을 기독교도로 개종시키는 것이 정복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라스 카사스에 못지 않는 기독교인이었다.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적 교양인인 그는 다만 군사적 정복이 사제들의 일거리를 덜고 개종을 훨씬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1547-8년에 살라망카 대학과 알칼라 대학에 보내면서 집필한 Democrates Secundus에서 당시에 논란이 일었던 정복전쟁에 합리화의 논리를 집대성하였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천성적 조건을 지닌 사람이 그런 복종을 거부하거나 복종시킬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전쟁은 정당화된다. (2) “자연에 특별하게 반하는 식인이란 끔찍한 죄를 제거하고, 하느님의 노여움을 불러 일으키는 악마 숭배와 가공할 만한 인신공희 의식을 단절하기 위해서” 전쟁은 정당화

된다. (3) “인간의 심장으로 제신을 달래기 위해... 이 야만인들이 매년 희생시키는 수많은 무고한 이들을 대재난에서 구하기 위해” 전쟁은 정당화된다. (4) “불신자에 대한 전쟁은 정당화된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기독교 종교를 전파하는 길을 열뿐 아니라 선교사들의 과업도 덜기 때문이다.”(Losada 1971: 284-300에서 재인용)

세뿔베다에 따르면 문명이 야만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하다. 스페인인들은 용기나 관대함, 그리고 문명화된 미덕을 지닌 문명인이다. 반면에 원주민은 우상숭배, 인신공양, 식인 풍습과 같은 악습에 물들어 있는 야만인이다. 이들은 겉으로만 인간의 모습을 한 존재일 뿐 진정한 인간으로 보기 힘들다. 세뿔베다가 이때 원용하는 근거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노예론과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노예에 대한 정의이다. 우수한 스페인인이 열등한 원주민들을 후견한다면 중국에는 기독교로의 개종으로 귀결될 것이다. 만약 원주민이 스페인의 지배를 거부한다면 전쟁은 정당한 전쟁(正戰)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전쟁을 통한 전교가 평화적 전교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는 세뿔베다의 논리 전개 속에서 유럽과 아메리카의 만남 속에서 최초로 등장한 “문명(인)/야만(인)”의 이분법과 위계화된 불평등 독트린이 뚜렷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서로 상이하다는 차이(difference)는 바로 불평등(inequality)의 독트린으로 전화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서구가 아메리카와 원주민들에 대해 담화적 차원에서 가한 최초의 폭력으로 타자화의 형태는 극도로 단순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세뿔베다의 분석은 인간 사회의 자연상태가 평등이 아니라 위계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인용하여 모든 위계가 “불완전성에 대한 완전성의, 나약함에 대한 힘의, 악에 대한 뛰어난 덕의 지배”에 기초해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 원칙을 적용하여 더욱 이성적인 사람이 다스리고, 이성을 결여한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노예화는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또도로프에 따르면 세뿔베다의 논리는 끊임없는 동어반복적 강조와 대비로 특징지어지고, 모든 차이는 우월/열등, 선/악이란 대비로 환원된다(Todorov 1982: 152-3).

인디오=어린이(아들)=여성(부인)=동물(원숭이)=야만=폭력=몸=욕구=악
스페인인=성인(아버지)=남자(남편)=인간=인내=온화=형태=영혼=이성=선

이렇게 전개된 불평등의 독트린으로서 노예주의 신학은 당시 발라돌리드과 살라망카 대학의 교회법 교수였던 빨라시오 루비오스에 의해 보다 세련된 형태로 전개된다. 그는 이미 오래 전인 1512-4년에 쓴 논문에서 스페인의 아메리카 정복의 옹호론을 개진한 바 있었다.

그에 따르면 아메리카에 대한 지배권과 사법권은 교황에게 있고 나아가 이

교도를 포함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지배자로 인식해야 한다. 교황이 스페인 군주에게 파르로나도를 통해 지배권과 사법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카스티야 군주는 원주민에게 공물과 봉사를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예수, 성베드로, 로마교황, 스페인 군주에 이르는 순서로 아메리카에 대한 지배권이 위임되었다는 논리이다. 성과 속에 대한 모든 지배권을 교황이 지니고 있다는 이러한 견해는 중세의 교황 수위권 논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데올로기적 견해로 16세기에는 상당히 받아 들이기 힘든 견해였지만, 아메리카 정복에 대한 스페인의 배타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이것만큼 그럴듯한 논리도 없었던 것이다.

정복 전쟁시에 있을 수 있는 무자비한 학살을 세련된 형태로 은폐하기 위한 레케리미엔토(Requerimiento)¹⁾란 규정이 나온 것도 바로 그의 공로이다. 레케리미엔토는 정복 전쟁 이전에 상대방에게 스페인 군주에게 평화적으로 복속당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문서를 서기로 하여금 읽게 하여 정복의 강제성을 분식하기 위해 나온 제도였다. 당시 이 문서는 원주민들이 진심으로 스페인 군주와 정복자들에게 의무사항을 이행한다면, 그들을 사랑으로 영접하겠지만 “만약 이를 이행치 않거나 악의적으로 지체한다면, 하느님의 도움으로 나는 당신들에게 대적할 것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하여 전쟁을 치를 것이고, 교회와 지고자의 손에 복속시킬 것이고, 당신들과 여자들과 자손들을 취할 것이고, 이들을 노예로 삼을 것이고, 으레 그러하듯 이들을 팔아 버릴 것”을 명기하고 있다(Mires 1991: 49에서 재인용). 평등주의가 체화된 기독교의 교리와 노예화의 정당화 논리를 한 장의 문서에 공존시킨 레케리미엔토야말로 이 시대 스페인 정복사의 한 희극적 장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노예신학의 논리는 초기에 원주민 노예제가 안착되기를 바랬던 엔코멘데로들과 교회 계서제의 압도적 지지 아래 인기를 누렸지만, 점차 엔코멘데로들의 원주민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살육이 스페인 궁정에 보고되면서 큰 도전을 받게 되었다. 반대의 갈래는 두 군데에서 나왔다.

앞에서 보았듯이 가장 격렬한 반대는 아메리카에서 천년왕국설적인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전교 활동을 펴기 시작한 프란시스코 수도회나 도미니카 수도회에 소속된 교단 수도사들로부터 나왔다. 이들은 성경에 대한 요아힘적 해석에

1) 당대 스페인인들의 법률적 형식주의(legal formalism)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제도는 마치 정복전쟁의 여부가 원주민의 선택에 달려 있는 문제인 것처럼 분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복자들이 경기규칙을 결정하고 해석하는 권한을 장악하였기에 별 의미가 없는 제도였다. 더구나 현장에서는 이 레케리미엔토가 제대로 읽혀지지도 않았고, 읽혀질 경우 원주민들이 아직 잠자고 있는 동트기 전에, 그것도 대부분 원주민들이 알아 들을 수 없는 스페인어로 읽혀졌기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였다(Benitez 1992: 61-2).

바탕을 두고 당대가 제3기인 성령의 시대로 천국이 가까운 시기로 파악했다. 아메리카의 발견은 그런 점에서 예견된 사건이고, 이 지역의 원주민에 대한 전교가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업일 것이라고 믿었다. 이들이 원주민을 노예로 취급하고 착취하는 정복자들과 엔코멘테로들을 격렬하게 비난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노예신학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바로 궁정 내부에서 나왔다. 엔코멘테로의 가혹한 착취와 수탈로 원주민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무질서가 팽배하자 군주 자신이 스스로 적절한 수준에서 개입하고자 했다. 정복자들의 권력 남용에 군주의 권위가 침해받고, 또 나아가 자신의 이익마저 훼손되고 있음을 느낀 군주는 왕국의 신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노예제에 반대했고, 조세제도에 기초한 공납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했다.

V. 평등한 독트린으로서 원주민 보호 신학: 전도된 형태의 타자화

초기 정복자들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은 프란시스코 교단의 수사들과 도미니카 교단의 몇몇 신부들로 부터 나왔다. 프란시스코 교단의 몬테시노스 교부는 엔코멘테로들에 대한 설교 도중에 이렇게 외쳤다. “인디오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들은 이성적 영혼이 없습니까? 도대체 무슨 권리로 당신들은 이들을 노예로 잡아두고 있습니까? 무슨 권위로 자기 땅에 평화롭게 사는 이들에 대한 가증스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까?”

수도회의 교부들과 수사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의 전교가 아메리카 발견과 지배의 제1 목적인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메리카는 이들에게 ‘약속의 땅’이었고, 스페인은 ‘선택된 민족’이었다. 전교는 이 땅에서 이루는 마지막 사업이었고, 타락한 유럽을 뛰어넘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이기도 했다.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논자는 도미니카 교단의 라스 까사스 신부였다. 그가 쓴 몇 권의 책은 당대 이루어졌던 정복과 식민화 사업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에 속하며, 오늘날까지도 읽히고 있다.

에스빠놀라섬에서 엔코멘테로로 일한 경험이 있는 라스 카사스는 48세에 도미니카 수도회에 입문하였다. 그런 점에서 당대의 학문을 체계적으로 흡수하여 자신의 논리로 재정리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는 스페인 교회의 “정의를 향한 투쟁”에서 가장 치열하게 인디오들을 보호하고 정복자들과 엔코멘테로의 만행을 생생하게 고발한 양심적 사제였다. 만약 그가 없었더라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 투쟁사도 그 기록도 희미해졌을 것이다.

라스 까사스는 초개인적 가치를 강조하는 ‘고전적’ 관념에서 벗어나 ‘근대인’의 시각을 선언한다. 근대인의 시각이란 사회적 가치보다 삶과 죽음이란 개인적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다(Todorov 1982: 155-6). 역설적이지만 이 근대인의 시각은 바로 성경책에서 도출된다. 그는 “네가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란 계명에서 ‘우리들’과 ‘그들’ 사이의, 스페인인과 인디오와의 평등을 도출해 낸다. 라스 까사스는 하느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히브리적 전통으로, 그리이스-로마적 불평등 독트린에 기초한 세뿔베다의 문명/야만 이분법을 다음과 같은 논리로 비판한다.

첫째, 세뿔베다가 주장하는 ‘비기독교인은 곧 야만인’이라는 정의는 너무 조야하다. 원주민은 결코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다. 원주민의 미술, 공예, 학습능력을 보면 이들 역시 이성적이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점을 알게 된다. 둘째, 이슬람교도와 유대교도 역시 비기독교인이지만 억압과 강제노역에 저항할 권리를 가졌음을 직시해야 한다. 셋째, 우상숭배, 인신공양, 식인 풍습을 이유로 정복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단지 점령자가 그 영토에 대한 사법권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고대 스페인인, 그리이스인, 로마인 역시 인신공양의 풍습이 있었다. 그러므로 인신공양을 금지시키는 것은 무력이 아닌 가르침과 설득에 의해야만 한다.

1541년 아메리카에서 스페인으로 건너간 라스 까사스는 왕립서인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정복자들의 갖은 만행을 고발하였다. 그는 이들이 부를 분별없이 맹목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군주의 신민인 원주민을 가혹하게 수탈하고 학살하고 있음을 비난하였다. 여기서 그가 개발한 논법이 노예신학자들의 문명/야만 이분법을 전도시킨 ‘악한 스페인인/ 선한 원주민’이란 이분법이다. 그는 원주민들이 원래부터 유럽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평등한 인간이며 따라서 선한 기독교인이 되기는 악한 정복자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라스 까사스의 주장은 1542년의 新法(Leyes Nuevas)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법으로 원칙적으로 원주민 노예제는 폐지되었다. 현재의 노예는 주인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자유로 해방될 수 있었다. 엔코미엔다의 원주민은 즉시 왕의 사법권 아래로 이전되었고 왕국의 신민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다. 또 엔코미엔다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정복자들의 탐험도 왕의 허가 아래서만 가능했고, 이경우에도 반드시 수사들을 동행하도록 의무화시켰다(Traboulay 1992).

그러나 이 신법에 대한 정복자들의 불만은 대단했고 실제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반발이 페루에서의 반란에서 보듯이 가시화되었다. 1549년 군주는 엔코미엔다 승계에 관한 엄격한 조치들을 엔코멘테로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할 수 밖에 없었다.

왕권은 점차 엔코멘테로의 저항에 직면하여 타협적으로 나갔지만, 라스 까사스는 지속적으로 이들과 싸웠다. 그는 고해자의 의무규정(Confesionario)을 제정하여, 원주민 노예를 자유인화시키고, 착취한 재산을 온전히 돌려준 경우에만 고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정복자, 엔코멘테로, 노예

소유자, 무기판매상들은 이에 따라 고해성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따른 불만은 대단하였다(Benitez 1992).

노예신학과 인디오 보호 신학은 1550-1년의 유명한 발라돌리드 대논쟁에서 다시 한 번 격돌하였다. 발라돌리드에서는 위계라는 그리이스-로마 전통과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기독교 전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상황은 점차 양자의 견해를 절충한 군주와 국가의 이익을 대변한 스킨라 철학의 영향을 크게 받은 중앙과의 견해로 수렴되어 갔다(Mires 1991). 말하자면 노예제보다는 공납제를 전면화하고자 했던 왕권의 이익이 점차 분위기를 주도해 갔던 것이다.

1562년에 서인도위원회에 보낸 문서는 라스 까사스의 논리를 잘 요약하고 있다. “첫째, 정복이라 불리는 모든 전쟁은 부당한 것이다. 둘째, 우리는 부당하게 인디오들의 왕국과 정부를 빼앗았다. 셋째, 엔꼬미엔다나 레빠르띠미엔또는 잔인하고 그 자체로 악한 것이다. 넷째, 이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만약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 군주는 터키인이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전쟁과 약탈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처럼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전쟁과 도둑질을 정당화할 수 없다. 여섯째, 스페인으로 온 모든 금, 은, 진주 그리고 다른 부들은 훔친 것이다. 일곱째, 만약 그들이 보상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덟째,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대해 정당한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를 그들의 땅으로부터 몰아낼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스 까사스 신부는 여기서 모든 정복전쟁의 부당성을 설파하고, 그동안 노략한 모든 전리품과 정부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설파한다. 그는 한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자연법과 규칙, 인권은 모든 민족에게 공통된 것이다. 기독교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종파, 법, 국가, 피부색, 조건이든간에 어떤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Friede 1971: 176에서 재인용).

비록 그가 정복자에 대해 피부은 분노는 대단했다고 할 지라도 그가 인식한 원주민에 대한 평등주의적 태도는 성경에 제시된 평등 원리를 그대로 대입한 것에 불과했다. 그는 인디오 원주민들을 선하고, 조용하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묘사만 했을 뿐이지, 원주민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스페인인들과의 차이를 변별하는 민속지적 태도를 지니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그의 평등 독트린은 차이를 인정하는 근대 인류학적 평등 독트린과 거리가 멀었다.²⁾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 카사스는 원주민 문명을 존경할만 한 것으로 간주했고, 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태도는 현대 인류학자의 태도에는 못미치지만 당대인들과 비교할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이다. 헵크는 그가 엄청난 자료를 수집해서 읽었고 수많은 현지수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기록을 남겼다는 점에서 “책상물림 학자와

원주민들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비록 그가 인디오 원주민들의 보호자로 치신하는 데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았으나, 프란시스코 수도회의 전교 정책과 마찬가지로 유럽적, 기독교적 가치를 그대로 주입하려는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라스 까사스의 논리는 노예신학이 전도된 형태로 나타난 타자화 논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도로프에 따르면 라스 까사스의 논리가 다음과 같은 발전 단계를 거친다(Todorov 1982).

- 가)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용될 수 있다(가능성).
- 나) 모든 민족은 기독교를 받아 들이게 되어 있다(가능성의 제거).
- 다) 인디오들은 이미 기독교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라스 까사스는 문화적 차이를 무시하고 당위론적으로 모든 인류를 동일한 범주로 묶는다. 그에게는 원주민에 대한 전교 사업이 하나의 가능성의 프로젝트에서 출발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미 실현된 프로젝트로 둔갑한다. 이렇듯 타자를 자신의 이념적 자아(ego ideal) 또는 자아 자체로 단순하게 동일시하는 평등논리의 경우 문화적 만남에서는 그 편견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Todorov 1982: 165).

이러한 논리는 프란시스코 수도회를 비롯한 다른 교단의 전교 정책에서도 변형된 형태로 드러나는데, 요컨대 유럽주의적 기독교적 시각으로 원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근원적으로 부정하고 서구화하려는 집요한 노력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논의는 비록 노예주의 신학 체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지만, 여전히 유럽의 식민주의적 사고방식 안에 갇혀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VI. 중앙파의 국제법 논리: 세련된 형태의 타자화

엔꼬멘테로와 교회의 계서제 부문을 한 축으로, 아메리카에서 전교활동을 주도한 수도회 신부들 사이의 여러 차례를 격돌을 겪으면서 전교의 이데올로기는 노예신학과 인디오 보호 신학으로 양분되어 갔다. 이런 와중에서 도미니카 교단의 사제이자 살라망카와 발라돌리드 대학의 법학 교수였던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는 자연법에 기초한 식민정책의 지침을 만들어 내었다. 비토리아가 <인디언 문제>(De Indis et de iure belli relectiones)라는 논저에서 상이한 민족(nations)의 만남으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국제법 논리는 당대의

현지조사 인류학자의 중간 어디엔가 속하는” 인류학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한다. Hanke 1951: 88. 그러나 그가 원주민과 그 문명을 이해하는 방식은 근대인류학적 시각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기묘한 발상이었다.

16세기 스페인의 신학-법학 르네상스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비토리아는 당대의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스페인의 아메리카 지배를 자연법에 기초한 논리를 제시하였다. 그는 살라망카대학과 발라돌리드에서 활약하면서 당대의 아메리카 정복, 교황의 교회에 대한 수위권 등과 같은 현안 문제에 개입하였다. 비토리아가 공부한 시대적 환경은 14세기에 스콜라 철학의 과도한 형식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유명론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설이 새롭게 부활하는 분위기였다. 그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주도하여 네오토마스주의적 신학과 법학의 전통을 크게 부활시켰다.

비토리아는 자연질서와 초자연질서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토마스주의적 전통에 따라 자연질서 속의 인간이 지닌 자연권과 인권 그리고 의무에 대해 성찰했다. 그가 자연법에 기초한 기독교적 ‘세계공동체’(comunitas orbis) 개념을 재평가하면서 “인간은 자연법상 세계시민”이란 결론을 도출하였다(Carro 1971: 251). 이러한 논리로 스페인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한 1538년의 강의에서 비토리아는 아메리카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이를 유명한 De Indis라는 논문으로 정리한 바 있다.

필자는 우선 비토리아가 노예주의 신학의 논리를 포함하여 당대에 유행하는 7가지의 아메리카 지배 논리를 비판하는 방식을 그의 주저 <인디언 문제>를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고, 그가 내세우는 스페인의 합법적 권한은 어떤 모습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기독교 황제가 세계의 지배자이므로 원주민 지배자를 대신해서 사법권을 가진다는 주장은 틀렸다. 자연법에 따르면, 가부장적 지배와 혼인에 따른 지배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다. 통치권과 우월(dominion and preeminence)의 문제는 인간의 법에 의해 도입된 것이다. 또 황제들은 신의 법에 의해 그 통치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Vitoria 1964: 129-34).

둘째, 교황이 전세계의 세속군주로서 스페인왕에게 아메리카 원주민의 통치권자로 임명했다는 논리도 틀렸다. 교황은 세속적 지배자가 아니다. 단지 그에게 주어진 권력은 영적 문제에만 해당이 되고, 그것도 기독교 세계에만 국한된 것이다. 원주민들이 개종을 거부한다고 해도 그것이 개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또 기독교로의 개종을 강요해서도 안된다. 아퀴나스도 강제적 개종에는 반대했고, 기독교 전파의 선행조건이 바로 자유라고 했다(134-8).

셋째, 새로 발견한 땅에 대해 無主物 先占의 논리로 발견의 권리를 주장하는 논리도 틀렸다. 이 땅들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원주민들이 진정한 소유주이기 때문이다(138-9).

넷째, 원주민의 불신앙을 문제삼아서 이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킬 목적으로 전쟁을 개전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주장도 틀렸다. 야만인들이 기독교에 대해 들은 바가 없을 때에는 불신앙의 죄가 없다. 교황이나 교회가 선교단을 파송하고

개종시킬 권리를 지닌 것과, 원주민들과 이교도들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신앙은 폭력을 통해 강제할 수 없으므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평화롭게 전파해야 한다(139-45).

다섯째, 원주민의 인신공희, 근친상간등 여타 자연에 반하는 죄를 들먹이면서 이들에 대한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도 틀렸다. 교황이나 기독교 군주는 이들의 죄를 다스릴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죄나 불신앙을 근거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145-8).

여섯째, 원주민들이 스페인 군주를 자유롭게 받아들였다는 주장도 잘못됐다. 주권양도의 전제조건은 ‘자발적 선택’(voluntary choice)인데, 공포감이나 무지를 동반한 정복과정에서 양도된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다(148).

일곱째, 신에 의해 서인도가 양도되었다는 논리도 잘못되었다. 혹자가 그 근거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지적한다. 비토리아는 구약에 ‘신세계’를 양도했다는 전거가 없다고 말한다(148-9).

비토리아는 당대에 유행하던 군사적 제국주의를 합법화하는 논리를 모두 비판하였다. 속권이나 교권의 논리(Hostiensis의 교황수위론)로 아메리카를 통치할 권한(title)을 도출하려던 노력이나, 레계리미엔토와 같은 법률적 형식주의 모두 비토리아가 내세우는 자연법적 기초를 결한 것이다. 자연법에 근거한 국제법의 논리, 바로 이 논리로 비토리아는 스페인들과 원주민들 사이의 관계를 합리화하고자 한다.

비토리아에 따르면 신세계에서 스페인인들이 지니는 최초의 합법적인 권리는 바로 “자연적 사회와 우애”(natural society and fellowship)에서 도출된다. 스페인인들은 국제법(jus gentium)에 따라 아메리카를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가 있고, 원주민들은 이를 막을 권리가 없다(152). 모든 사람들은 형제애, 상호의존, 상호존중이라는 공통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자연적 세계공동체”(communitas naturalis orbis)에서 스페인인이나 원주민 모두 세계 시민으로서 의사소통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스페인과의 여행과 자유로운 무역으로 원주민들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원주민들이 거부를 한다면, 스페인인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의도가 없다고 합리적으로 설득해야하고, 이를 또 거부하고 전쟁을 준비한다면, 스페인인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국제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누리도록 땅을 차지하고 원주민을 복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다(153-4).

그런데 왜 스페인인들만이 아메리카에서 기독교 문명의 전파자가 되어야 하는가? 비토리아는 고민 끝에 두 번째 통치권의 연원으로서 ‘기독교 전교’(propagation of Christianity)의 권리를 든다. 기독교인들은 야만인들의 땅에서 성경을 설교하고 선포할 권리가 있다. 구원과 행복에 관한 문제에 대해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스페인

만이 이러한 사명을 가져야 하는가? 여기서 스페인에게 아메리카의 정복과 식민화에 있어 독점권을 부여한 빠트로나토 레알(Patronato Real)을 양허한 교황의 전교적 권한을 지지한다. 비토리아에 따르면 교황의 속권은 “영적인 문제에 봉사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그는 전교에 관한 스페인의 독점권을 인정한 교황의 정책은 효과적인 기독교 전교와 군주들 사이의 분쟁 방지를 위한 것이라 답한다. 게다가 대서양 항해의 비용을 부담했고 신세계를 처음 발견한 스페인인들이 발견의 과실을 혼자 향유하는 것도 당연하다.³⁾(156-7)

이외에도 비토리아는 스페인인들이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158-60). (1) 원주민 기독교인이 현지 군주에 의해 우상숭배를 강요받을 경우 개전하여 군주를 양위시킬 수 있다. (2) 많은 원주민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을 경우 교황은 기독교 군주를 세울 수 있다. (3) 폭정이나 폭정적인 법률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거나 식인 목적으로 살해할 경우 교황의 권위 없이도 스페인인들은 이를 중지시킬 수 있다. (4) 치자와 피치자의 진실되고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스페인왕을 자신들의 주권자로 영접할 수 있다. (5) 원주민들 사이의 전쟁에서 불이익을 당한 쪽이 스페인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을 경우, 스페인인들은 승리의 과실을 취할 수 있다.

이처럼 자연법에 기초한 비토리아의 논리는 당시 까를로스 5세의 궁정에 노예주의 신학자들과 인디오주의 신학자들을 절충하는 보다 세련된 식민정책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다. 비토리아가 제민족의 자결, 주권, 소유권의 합법성을 논하는 부분에서는 라스 까사스의 논리와 근접했지만, 방어전쟁의 합법성을 논하는 부분에 가서는 세벨베다에 위협스럽게 근접해갔다(Mires 1989: 211). 실제로 1550년부터 개척된 발라돌리드 대논쟁(Las Casas vs. Sepulveda)에 판정관의 역할을 맡았던 멜초르 까노 등이 그의 학설을 이어받은 제자들이기도 했다.

중앙과의 입장은 엔코멘데로들의 지지를 받는 노예주의 신학을 명시적으로 비판하고, 나아가 급진적인 원주민 전교 정책을 추진하는 수도회의 논리를 순화하여 왕권과 관료제의 이익을 정교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점차 왕궁에서 지지를 넓혀 나갔다. 왕권은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엔코멘데로의 이해와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수도회의 전교적 유평피아를 꿈꾸는 집단 역시 궁정의 통제 아래로 흡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 입장은 원주민들의 과도한 살상을 부추기는 엔코멘데로들의 전횡을 막고 원주민들을 왕의 신민들로 편입시켜, 자연법 체계하의 인권보장과 아울러 공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였기에 점차 국가의 공식적 입장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논리는 향후 바르톨로메 까란사(Bartolome Carranza), 멜초르 까노 수사(Fray Melchor

3) 바로 이 스페인의 독점권에 대해 프랑스의 프랑수아 1세는 신세계의 발견과 착취의 권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뺀 아담과 이브의 유언장을 보여달라고 하며 문제제기를 했고, 법학자 그로티우스 역시 아메리카의 무역을 네덜란드 상인에게도 개방할 것을 주장하는 논리를 폈다(Gomez 1996: 88).

Cano), 디에고 데 꼬바루비아스(Diego de Covarrubias) 등에 의해 보다 정교하고 때로는 급진적인 형태로 발전한다.

그렇지만 이 논리 역시 원주민을 순화된 형태로 타자화하는 데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무엇보다 비토리아가 주장한 ‘만나고 의사소통할 자연권’에 따르면 교역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이 자유의 혜택이 과연 인디오 원주민들에게도 동등하게 배분되었을까? 사상의 자유란 기독교를 전파할 자유였지 적극적으로 거부할 자유는 아니었을 것이다. 더구나 이 자유가 <뽀뽀 부>(Popol Vuh)나 <칠람 발람의 책>와 같은 원주민들의 경전을 스페인과 유럽에 전파할 자유는 더더욱 아니었을 것이다. 또 원주민 지도자나 법의 전체에 대항하여 무고한 자들의 이름으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가 專制의 의미를 결정하고 판단할 것인가? 모든 것의 기준을 스페인 군주와 교회가 결정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란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원리이지만, 실제로는 불평등한 독트린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문명과 야만을 선형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비토리아의 저술에는 원주민Indian이란 말과 야만인Barbarian이란 말이 혼용되고 있다), 현존하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무시하면서 잣대를 댄다면 그 결과는 여전히 제국주의적 타자화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메리카 발견과 정복 그리고 식민화 과정은 이에 개입한 행위자들의 이해갈등을 적나라하게 노출시켰고, 이 과정에서 제출된 다양한 비전은 결국 중앙과 적 신학체계로 수렴되었다. 이리하여 16세기 중엽에 이르러 기독교 스페인과 비서구 사회의 관계를 지배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이 성립하게 되었다. (1) 피지배자의 동의, (2) 정당하게 자리에 오른 지도자의 승인, (3) 무고한 사람들의 보호, (4) 전교의 권리가 바로 그것이다. 이로써 스페인 군주의 정복권과 원주민의 자연권의 타협이 이루어 지게 되었다.

이러한 타협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건이 바로 1571년 미겔 데 레가스삐(Miguel de Legaspi)가 필리핀을 정복하자 벌어진 논쟁과 타협이다. 애초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와 예수회는 교황의 파트로나토를 근거로 필리핀에 대한 스페인의 주권을 인정했으나, 도미니카 수도회는 스페인의 정치적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스페인 군주는 단지 교황의 영적 권리의 한 도구일 뿐 이라고 주장했다. 정당한 사법권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원주민들의 자유로운 동의라는 중앙과의 논리를 주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논쟁에서 1597년 펠리페 2세는 기독교도가 아닌 필리핀인들로부터 부당하게 빼앗은 공물의 반환을 위한 법령을 발표하여 도미니카 수도회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다. 펠리페 2세는 이 법령에서 원주민들에게 스페인 군주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에 동의하도록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중앙과 적 논리의 득세도 오래 가지는 않았다. 17세기 중반에 이르러 스페인의 아메리카 지배가 공고화되면서 다시 빠트로나토에 의한 스페인 군주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분위

기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자연권 이론에 입각한 통치론은 점차 잊혀 지게 되었다.

VII. 결 론

이 글은 16세기 아메리카의 정복과 전교를 둘러싸고 벌어진 스페인의 식민화 논리를 ‘타자화’(othering)의 틀 속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 16세기의 논쟁은 17세기 이후 세련된 형태로 전개되는 로크의 <시민정부론>, 헤겔의 <역사철학>과 같은 저작에서 볼 수 있듯이, 서구의 타자화 논리의 뿌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필자는 여기서 16세기 전반기를 지배했던 스페인 정치사상 흐름의 세 줄기가 바로 정복과 식민화를 둘러싼 세 개의 이해 관계자 집단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그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초기에 제기된 정복자들과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교단의 노예주의 신학 체계는 당시 전교의 유포피아를 꿈꾸는 탁발승단의 방침과는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식민지배의 장기적 이해를 도모하는 왕권의 이익과도 융합하기 힘들었다. 반면 하느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외치는 탁발승단의 ‘전교의 유포피아’론도 당시에 첨예하게 드러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서 실천에 옮겨지기가 힘들었다. 더구나 이들의 논리를 급진화한다면 스페인 군주의 파트로나토 레알의 정당성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와 세력의 균형을 도모하는 스페인 군주와 이를 표현한 중앙파적 신학자들은 식민지 현지권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한 때는 탁발승단의 손을 들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엔코멘데로나 식민지 현지 권력층의 저항과 반란이 거세지면, 군주는 자신이 내린 법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수정하기도 했던 것이다.

프란시스꼬 데 비토리아는 바로 이러한 중앙파적 신학체계를 가장 세련되게 표현한 학자였다. 그는 자연법 체계를 원용하여 노예주의 신학자들의 타자화 논리를 비판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의사소통할 권리’를 내세워 스페인의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지배의 논리를 세련화시켰던 것이다. 오늘날의 근대 국제법의 논리와도 별반 차이가 없는 그의 식민 합리화 논리는 16세기 스페인 정치사상의 정수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 관련된 사건의 연표

- 1474 바르톨로메 델 라스 카사스 탄생(1484년이란 설도 있음).
- 1477 카나리아 군도에 대한 카톨릭 군주의 개입.
- 1492 그라나다 함락.
- 1492-3 콜럼버스의 첫 번째 항해.
- 1500 까를로스 5세의 탄생.
- 1502 니콜라스 데 오반도, 라 에스빠놀라 섬의 지사로 임명됨.
- 1504 이사벨라 여왕의 서거.
- 1511 몬테시노스, 라 에스빠놀라에서 설교를 통해 엔꼬멘데로의 만행을 공격함.
- 1512-3 부르고스법(Leyes de Burgos) 출판.
- 1513 빨라시오 루비오스에 의해 레께리미엔토(Requerimiento)가 만들어짐.
- 1514 라스 카사스, 원주민의 참상을 보고 개심함.
- 1515 라스 카사스, 스페인으로 돌아옴.
- 1516 페르디난드 왕의 서거.
- 1517 섭정 히메네스 데 시스네로스 추기경의 죽음.
- 1518 까를로스 5세의 친정체제 확립, 플랑드르인들의 특세.
- 1520-2 라스 까사스, 꾸마나 지역 전교사업의 실험과 실패.
- 1523 라스 까사스, 도미니카 수도원 입회(48세).
- 1536 라스 까사스, 베라빠스(과테말라)에서 실험적 사목 활동을 하고 상대적으로 성공을 거둠.
- 1538 바로로 3세, 교서 수블리무스 데우스(Sublimus Deus) 발표, 인디오의 인격성을 인정함. /에르난 코르테스의 죽음.
- 1539 프란시스꼬 데 비토리아, Relatio de Indio 발표.
- 1542-3 신법(Leyes Nuevas) 공포.
- 1544-8 페루 내전 상황.
- 1545 후안 히네스 데 세뿔베다의 Democrates alter 출간.
- 1546 프란시스꼬 데 비토리아의 죽음.
- 1546 타협책 모색.
- 1550 발라돌리드 대논쟁(Las Casas vs. Sepulveda)
- 1552 라스 까사스, <서인도 파괴 약사>(Brevisima relacion de la destruccion de las Indias) 출간.
- 1566 라스 까사스의 죽음

참 고 문 헌

- Benitez, Fernando, 1992, *Que celebramos, que lamentamos?* Mexico: Ediciones Era.
- Bernard, Carmen et Serge Gruzinski 1991 *Histoire du Nouveau Monde: De la decouverte a la conquete*, Paris: Fayard.
- , 1993 *Histoire du Nouveau Monde: Les metissages*, Paris: Fayard.
- Blaut, J. M., 1993 *The Colonizer's Model of the World: Geographical Diffusionism and Eurocentric Histor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rading, David A. 1991 *The First America: the Spanish Monarchy, Creole Patriots and the Liberal State, 1492-1867*, New York.
- Carro, Venancio D. 1971 "The Spanish Theological-Juridical Renaissance and the Ideology of Bartolome de Las Casas," in Friede and Keen (1971).
- Las Casas, Bartolome, 1981 *Historia de las Indias, I, II, III*, Mexico: Fondo de Cultura Economica.
- Dussel, Enrique 1992 *1492 L'occultation de l'autre*, tr. by Christian Rudel, Paris: Les Editions Ouvriere.
- Florescano, Enrique 1994 *Memory, Myth, and Time in Mexico: From the Aztecs to Independence*, Austin: Univ. of Texas Press.
- Friede, Juan 1971 "Las Casas and indigenism in the Sixteenth Century," in Friede and Keen (ed. 1971).
- Friede, Juan and Benjamin Keen eds. 1971 *Bartolome de Las Casaa in History: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Man and His Work*, Dekalb: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Gambra, Rafael, 1992 *La cristianizacion de America*, Madrid: Editorial MAPFRE.
- Gomez, Thomas, 1996 *Droits de conquete et droits des Indiens*, Paris: Armand Colin.
- Gruzinski, Serge 1989 *Man-God in the Mexican Highlands: Indian Power and Colonial Society, 1520-180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nke, Lewis, *Bartolome de Las Casas: An Interpretation of His Life and Writings*,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51.
- Keal Paul 1996 "'Just Backward Children': International Law and the Conquest of Non-European Peoples,"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49(2).
- Lafaye, Jacques, 1970 *Los conquistadores*, Mexico: Siglo XXI.
- Latin American Perspectives 1992 *Five Hundred Years of Colon-izations: Struggles for Emancipation and Identity*, LAP, 74, Summer.
- Losada, Angel, 1971 "The Controversy between Sepulveda and Las Casas in the Junta

- of Valladolid," en Friede and Keen (ed. 1971).
- Mires, Fernando 1989 *En nombre de la cruz: Discusiones teológicas y políticas frente al holocausto de los indios (periodo de conquista)*, San Jose, Costa Rica: Editorial Dei.
- 1991 *La colonización de las almas: Mision y conquista en Hispanoamerica*, San Jose: Editorial Dei.
- Todorov, Tzvetan 1982 *La conquete de l'Amérique*, Paris; Editions de Seuil. 1987; *The Conquest of America*, New York: Harper and Row.
- Traboulay, David M. 1994 *Columbus and Las Casas: The Conquest and Christianization of America, 1492-1566*, New Y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Vitoria, Francisco de, 1964(1538) *De Indis et de iure belli reflectiones*, edited by Ernest Nys, New York: Oceana Publications Inc.(The Classics of International Law, edited by James Brown Scott).
- Wolf, Eric, 1982 *Europe and the People without Histor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Otherring the American Indians: the Debates in Spain of the 16th C

Lee, Sung-Hyung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n article to try to clarify the multiple politico-theological rationales of othering the indians, which were much debated in the Spanish court and academics in the sixteenth century. The Spanish conquest of the Americas made all the social forces concerned subscribe their logic and interest: for the Crown, the exclusive and monopolistic claim to govern the peoples and resources; for the encomenderos, the right to exploit the indigenous people without constraint; for the mendicant orders, the right to spiritual conquest and to curb the brutal exploitation of encomenderos. These arguments and debates are the first endeavour to delineate the logics to othering "peoples without history".

The theology of enslavement presented by Gines Sepulveda argued the expediency of enslaving indians for the rapid promotion of Christianity and material development. According the logic, the indians lacks the intelligence to hear the Good News, and is too tepid and lazy to be cultured. The civilzed people have to enforce them by more militarized methods to accept their religion and way of life.

But the missionary orders criticized poignantly the brutal exploitation of encomenderos. Rapid diminution of the indian population in the Carribbean islands shocked them to have a very firm attitude in this point. Their visionary dreams to build a utopian community in the new world also strengthened their criticism against encomenderos. Las Casas, a Dominican friar represented this kind of viewpoint.

To accomodate the mutually conflicting views, the centrist position emerged. Francisco de Vitoria advocated the legitimate right to the newly conquered lands and people in terms of natural right. According to the logic, the indians could not but accept the right to communicate of Spanish people. This line of reasoning rejected the radical elements of "liberation theology at that times" of Las Casas and also satisfied the royal court. Here we can see the most elaborated version of othering the indians by the name of international law.